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렇게 믿으라”(설교요약)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제국은 이 세상을 의미한다. 느브갓네살 왕은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를 의미한다.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그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마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굴복하게 만든다. 느브갓네살 왕도 30m나 되는 금신상을 만들어 사람들이 그 앞에 절하게 했다(7절).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은 왕의 회유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켜낸다. 오늘 본문은 왕 앞에서 조금도 위축됨이 없이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을 소개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 세 사람들처럼 믿어야 한다. 과연 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

1.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고한 신앙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말은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단호하고 확고한지 잘 보여준다. 그들의 단호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고한데서 비롯되었다. 우리 역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처음부터 단호해야 한다. 주저주저하면서 시간을 끌면, 마귀는 우리를 만만하게 보고 본격적으로 공격해 온다. 시작부터 협상을 불허하라. 신앙은 타협거리가 아니다. 신앙은 상황에 따라 양보할 수 있는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절대불변의 가치다. 그들은 왕의 신상보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는 믿음을 가졌다. 그리고 자기가 믿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목숨을 걸었다.

2.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신앙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또한 그들이 물러서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을 능히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신앙생활은 잘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경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 심지어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불같은 시험일지라도 꿈쩍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다. 과연 세 사람은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해를 받지 않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25-27절). 다시 그러므로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신호임을 기억하라!

3.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신앙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어떤 주석가는 이 고백이야말로 ‘신앙의 진수’라고 했다. 이 말은 한 마디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신앙고백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맡긴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다. 어떤 경우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운다. 그래서 뜻대로 일이 안 풀려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언제나 감사하면서 믿음을 지킨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렇게 믿으라 (단3:13-18)

1. 마음 열기 - 오늘 스스로에게 들려주고 싶은 격려 한 마디는?

2. 경배와 찬양 - 찬 송 가 : 어려운 일 당할 때 (찬543장)

- 복음성가 : 날 구원하신 주 감사

(1절)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론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2절)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 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 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3절)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따스한 가정 희망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3. 말씀 나누기

(1) 한 주간 동안 자신에게 일어났던 삶의 간증을 함께 나누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신앙의 회유와 헐박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2) 성경본문과 설교요약을 읽고, 특별하게 다가온 구절이나 문장 또는

새롭게 깨달은 교훈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3) 지금 당신이 세상적인 축복이나, 물질적이 풍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익만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직 미숙한 단계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면서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 낸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십시오.

4. 사역나누기

오늘 나눔 가운데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 기도

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마음에 떠오른 격려, 위로, 축복이 있으면 나누어

주십시오.